

상하이 FTZ 3주년 평가 및 전망

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

주요내용

- (현황) 최근 상하이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(이하 시험구, 2013.9~) 건설 진전현황 및 향후 조치에 대해 발표
- (원인과 분석) 중국 내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, 투자관리제도 개선, 무역편리화, 금융제도 혁신 측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, 단 국내외에서는 서비스분야의 개방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, 최근까지 기대에 부응할만한 조치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
- (전망과 시사점) 2020년까지 상하이 시험구는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전략 등과 함께 국제수준의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며, 중점분야인 금융 및 서비스 개방 관련 추가적인 조치들이 발표될 전망이다.

1. 이슈 현황

■ 최근 상하이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(이하 시험구, 2013.9~) 건설 진전현황 및 향후 조치에 대해 발표

- 시험구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한 약 100여개의 조치들을 점층적·전국적으로 확대 중
 - 외국인투자 등록관리제도, “단일 창구”시스템 등 37개 항목의 투자영역 개혁조치, “선 진입 후 통관” 등 34개 항목의 통관영역 개혁조치, 금리시장화 등 23개 금융제도 혁신조치를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
- 상하이를 시작으로 자유무역시험구가 타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신설¹⁾
- 출범부터 2017년 2월까지 신설기업은 누적기준 4만 4천여 개이며²⁾ 그중 내자기업이 81%(35,961개), 외자기업이 18.3%(8,057개)를 차지
 - 신설기업 중 80%이상이 무역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종사

1) '13. 9 상하이 → '14. 12 텐진, 광둥, 푸젠 → '17. 3 랴오닝, 저장, 허난, 후베이, 충칭, 쓰촨, 산시(陝西)

2) 누적 신설기업 수는 시험구 출범 전 20년간의 총합을 초과한 수치

2. 원인과 분석

■ 중국 내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, 투자관리제도 개선, 무역편리화, 금융제도 혁신 측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

- 투자관리제도 개선 및 시장진입 장벽 완화: 네거티브리스트 정착 및 조항 축소, 투자분야 심사 및 외국기업 설립·변경 절차 간소화³⁾
 - 네거티브리스트의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 항목은 지속적으로 축소
 - * 2013년 190개 → 2014년 139개 → 2015년 122개 → 2017년 95개
 - 시험구 내 외국기업의 90% 이상이 등록제를 통해 설립할 만큼 투자분야가 개방되었고 실제, 처리시간이 8일→1일로 대폭 단축, 구비서류도 10종류→3종류로 축소
- 국제 수준의 무역관리제도 구축: '단일 창구(one-stop)' 제도를 통한 무역절차 간소화, 무역통관 및 검역제도 개혁 실시
 - 시험구 세관특수관리감독 구역에서는 기타 세관과 비교하여 통관 반입·반출 시간이 각각 78.5%, 31.7% 단축되면서 물류비용이 평균적으로 10% 감소⁴⁾
- 금융제도 혁신: 자유무역계좌⁵⁾ 시스템을 구축하고, 위안화 역외사용 확대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
 - 17년 2월 기준, 51개 상하이시 내 금융기관이 자유무역계좌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개설된 자유무역계좌 수는 누적기준 6만 5천개임.

□ 국내외에서는 서비스분야의 개방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, 최근까지 기대에 부응할만한 조치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

- 개방 속도가 매우 더디며, 제한적으로 개방한 일부 분야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음 (Financial Times, 2015.9).
 -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되는 제도개혁에 있어서도 후속조치 미흡으로 한계 존재
- 가장 주목되었던 금융개방은 위안화 자유태환과 대외 금융서비스 개방보다는, 금융시스템 개혁과 대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서비스기능 확대에 그친 수준
 - 금융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으며,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음(Nikkei Asian Review, 2015.10).
- 또한 네거티브리스트의 금지·제한 목록이 많고 개방범위와 조건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, 특히 통신, 자동차, 금융서비스분야는 투자 제한을 여전히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(EIU China Hand, 2017.5).

3) 외국인투자 등록관리제도(심사제→등록제)의 경우, 시험구에서 시행해오다 '16. 10부터 전국으로 확대

4) 3년간 시험구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을 통한 수출입액은 약 2조 위안으로 동 기간, 상하이시 무역규모의 약 27%를 차지

5) 일종의 역외계좌로, 역외에서도 위안화와 외화간의 거래 가능

3. 전망과 시사점

■ 2020년까지 상하이 시험구는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전략 등과 함께 국제수준의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며, 중점분야인 금융 및 서비스 개방 관련 추가적인 조치들이 발표될 전망이다.

- 3월 국무원은 “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전면 심화 방안”을 통해 2020년까지 국제수준의 자유무역지대 조성하겠다고 밝힘.
 -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 건설과 연계하여 시험구의 역할을 확대함.
 - * 시험구의 금융서비스기능을 확대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용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, 주변국의 금융기관, 투자자들을 흡수하여 중국 내 위안화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.
- 시험구에서 대외개방 압력과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및 서비스분야의 추가 개방이 필연적인 만큼, 관련조치들이 계속해서 발표될 것
 - 3월 상하이 FTZ 관련 책임자는 은행류의 금융기관·증권회사·증권기금관리회사·보험회사 등의 외자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⁶⁾.
 - 5월 상하이 시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금융개혁과 국제금융허브건설의 연동을 강화하고, 자유무역계좌 기능 및 기업의 해외 투·용자 기회를 확대할 것을 발표⁷⁾ 

참고문헌

- 상하이 시정부·상하이 FTZ 홈페이지
- EIU
- 经纪网
- 新华网

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‘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’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6) 3월8일, 上海商务情况通报会

7) 「혁신주도 발전기반 강화와 실물경제 체력향상에 관한 의견」